

제주 휴가철 코로나19 재확산하나

최근 일주일 확진자 1440명... 전주보다 2배 늘어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방역수칙 준수 절실"

제주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는 28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5일 오후 5시까지 제주도가 집계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92명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24만424명으로 늘었는데, 이날 하루

확진자는 300명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40명이 발생했다. 이는 전주 대비 708명이 증가한 것으로 일평균으로는 200여명이 넘는다.

날짜로 보면 6월 28일 169명, 29일 205명, 30일 184명, 7월1일 216명, 2일 207명, 3일 174명, 4일 285

명 등이다.

연령별 비율은 0~9세 13.4%, 10~19세 18.6%, 20~29세 13.7%, 30~39세 15.0%, 40~49세 15.2%, 50~59세 11.7%, 60~69세 7.1%, 70~79세 2.9%, 80세 이상 2.4% 등이다.

도내 인구(67만2808명)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는 1차 접종 58만9935명(87.7%), 2차 접종 43만5074명(64.6%) 등이며, 4차 접종은 5만7640명(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 3차 백신 접종 효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휴가철을 맞아 전

국 관광객이 제주로 몰리면서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사람간 접촉량도 늘고 있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름철을 맞아 실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밀폐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등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확산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아직 재유행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4·3군사재판 수형인 30명 또 '무죄'

어제 제주지법 직권재심 재판 지금까지 총 190명 무죄 선고

"특별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4·3 때 많이 어리거나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텐데...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판사에게 말하면 됩니다."

제주4·3 재심 재판에서 유족들이 증언을 망설이자 검사가 한 말이다.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일반 검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제주지방법원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군법회의(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월 29일 40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9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이날 무죄를 선고 받은 30명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두 행방 불명 혹은 사망해 유족이 대신 법정 출석했다.

선고 전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억울함을 눈물로 증언했다. 사망일을 몰라 군·경에 끌려간 날에 제사를 지낸다거나, 가매장 장소를 찾지 못해 시신 수습을 하지 못한 사연 등을 법정에서 풀어낸 것이다. 이에 앞서 변진환 4·3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검사는 망설이는 유족들에게 재심의 의미를 설명하며 증언을 독려했기도 했다.

이러 정소영 검사는 "이념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다. 피고인들 역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을 받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장 부장판사는 "합동수행단이 고생 많다. 대한민국 검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고 유족들에게 설명한 뒤 "이번 사건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송은범기자

성산항 화재원인 조사 시작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3척 화재와 관련해 본격적인 원인 조사가 시작됐다.

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 과학수사대와 제주소방 광역화재조사단, 국립수사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이날 오전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1차 감식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성산항에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29t·39t·47t)에서 화재가 발생, 12시간 3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59분쯤 진압됐다.

당시 큰 불길로 인해 접안 시설은 물론 화재진압에 나섰던 고성능 화확차 1대까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안개처럼 쏟아지는 분수 5일 제주시 신산공원에 설치된 안개분수에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찾아와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강희만기자

버스 전용차로 이용 압제운전 폭증

제주시 올 상반기 과태료 부과 5838건... "렌터카 위반 많아"

올해부터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3회 적발에서 1회 적발로 변경된 것과 관련 벌써 지난 한 해 과태료 부과 규모를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버스전용차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5838건·2

억9432만원이다. 이는 2020년 2084건, 지난해 2054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이 부과된 것이다.

전용차로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중앙차로·2.7km·단속 카메라 4대), 공항~해태동산(중앙차로·800m·단속 카메라 2대), 무수천~국립박물관(가로변차로·11.8km·

단속 카메라 10대) 가로변 차로 등 3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항~해태동산 구간은 지하차도 공사로 단속이 보류된 상태.

올해 버스 전용차로 단속 현황을 구간별로 보면 무수천~국립박물관이 4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사거리~아라초 구간은 1544건이었다.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렌터카가 적발된 경우는 전체 단속 건수의

29%(1656건)였으며, 구간 별로는 무수천~국립박물관 940건, 광양사거리~아라초 716건이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3회 적발 시 과태료 부과에서 1회 적발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늘었다. 특징을 보면 도민 단속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관광객이 단속되는 경우는 늘고 있다"며 "단속 방식 변경은 계획된 바 없다. 향후 도민과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강화된 단속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SNS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구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도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제주시의 한 속

박업소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지난달 B양을 알게 됐으며 그동안 몇 차례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 지인을 통해 성폭행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선거공신 등용 '나눠먹기 인사' 안돼"

제주민예총 오 도정 출범 논평

(사)제주민예총이 5일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에 따른 논평을 내고 "선거공신 등용 등 전임 도정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 관련 기관장이 전직 도의원 등 정치권 혹은 선거 캠프 인사들을 임명하는 '나눠먹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제주민예총은 또 이날 논평에서 제주 지역문화예술 지원과 육성에 대한 로드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점도 꼬집으며 "지금은 제주문화예술인들의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제주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제주 문화예술 정책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할 고도의 협치 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그랜드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대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무료주차)

서사리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